

『여자가』에 수록된 규방가사와 언간독의 구성과 의미*

정기선**

- I. 서론
- II. 『여자가』의 서지와 구성
- III. 『여자가』에 수록된 규방가사 2편: <여자가>와 <발몽가>
- IV. 『여자가』에 수록된 한글 편지 13편:
『타국의 나간 아들에게 편지 서식』 외 12편
- 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1906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소장 『여자가』에 수록된 규방가사와 언간의 구성과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지금까지 『여자가』는 <복선화음가>의 이본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졌을 뿐 수록된 언간의 내용과 규방가사와의 관계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 글은 『여자가』의 서지와 구성을 검토하고, <여자가>와 <발몽가> 등 규방가사 2편과 한글 편지 13편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규방가사와 언간이 함께 수록된 현상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했다.

『여자가』는 하나의 일관된 필사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편찬된 것으로 보이며, 규방가사와 편지 자료는 모두 여성들의 실용적 글쓰기라는 공통점을 공유한다. 『여자가』에 수록된 규방가사는 유교적 교훈을 전달

* 이 논문은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이 논문은 2025년 2월 11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문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노래와 편지: 20세기 초 규방가사와 언간독의 관계에 대한 시론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소장 『여자가』를 중심으로'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와 논문 심사 과정에서 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하는 실용적인 노래로, 편지는 일상 소통과 글쓰기 학습을 위한 실용적인 글쓰기 양식으로 기능했다. 특히 편지의 배열 순서, 서체, 쪽 번호, 불완전한 편지를 수록한 사실 등을 통해 편찬자의 의식적인 선택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이 글은 시론적 수준에 머물지만, 규방가사와 인간이 함께 수록된 자료를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규방가사, 인간, 편지, 계녀가, 복선화음가, 여자가, 발몽가

1. 서론

이 글은 1906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국대학교 울곡기념도서관 소장 『여자가』에 수록된 규방가사¹⁾와 인간²⁾의 구성과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글에서 다룬 문헌 『여자가』는 일찍이 성무경에 의해 알려졌다. 성무경은 가사 <복선화음가>의 이본을 조사하면서 <복선화음가>의 새로운 이본인 가사 <여자가>가 수록된 문헌으로 『여자가』의 존재를 학계에 처음 보고했다. 그는 새로운 문헌인 『여자가』에 가사 <여자가>와 교훈을 주제로 한 글이 함께 수록되었다고 『여자가』의 구성을 간단히 소개했다.³⁾ 이후

1) 규방가사는 여성들이 창작과 향유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사로, 2022년 11월 26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내방가사’로 등재되었다. 이후 규방가사 대신 내방가사라는 명칭을 여러 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학술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규방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2) 인간(諺簡)은 한글 편지를 뜻하는데, 내간(內簡)을 비롯해 매우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여기에서는 인간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헌이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명칭을 적절히 사용하고자 한다. 황문환, 『조선시대의 한글편지, 인간, 역락, 2015, 34~51면.

3) “13. 『여자가』, 김동욱 소장본, 『여자가』. 줄글체, 작품수록 뒤에 『내측』과 『열여전』의 내용을 인거한 교훈의 글이 附記되어 있음.” 성무경, 『신발굴 자료를 통해 본 가사문학의 재인식 :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이본현황과 텍스트 소통』, 『민족문화사연구』 22, 민족문화사연구소, 2003; 계수록, 성무경,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이본현황과 텍스트 소통』,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서, 2004, 231면.

『여자가』는 우산본 <복선화음록>에 관한 연구에서 <복선화음가>의 이본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여기에서 윤주필은 인천 개항과 경인철도에 관한 내간을 근거로 『여자가』의 필사 시기를 병오년(1906)으로 추정하고, 가사 <여자가>가 <복선화음가>의 기본형에서 일부 내용이 탈락 또는 부연된 이본에 속하며 괴송사설 이후 계녀 내용이 비대해진 작품이라고 규정했다.⁴⁾ 지금까지 『여자가』라는 문헌은 계녀가를 대표하는 <복선화음가>의 이본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여자가』에 수록된 언간의 내용과 성격, 언간과 가사와의 관계 등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언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새로운 언간 자료를 소개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⁵⁾ 최근에는 19세기 후반에 출판된 한글 편지 교재인 ‘방각본 언간독’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김종철은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방각본 언간독’이 특정한 소통 맥락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작문 교재였다고 평가했으며⁶⁾ 최지너는 문화사의 관점에서 ‘방각본 언간독’이 신분과 성별을 초월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했다고 해석했다.⁷⁾ 이들 연구는 ‘방각본 언간독’의 성격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함으로써 ‘방각본 언간독’ 즉 한글 편지 교재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장요한은 ‘방각본 언간독’을 필사한 자료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언간독(諺簡牘)』과 한국가사문학관 소장 『언간독 초(諺簡牘 抄)』를 비교 검토한 다음, 기존의 ‘방각본 언간독’을 선별적으로 필사한 이들 자료가 부녀자의 교양 교육을 위해 편찬되었다고 설명했다.⁸⁾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것은 기존의

4) “(4) <여자가>, 『誠女歌詞/여자의노래』, 단국대 율곡도서관, 700구내외에 상당, 김익주의 손녀 한결강의 손부, 병오년(1906) 노모 필사추정(인천 개항 경인철도 관련 내간이 있음), 신행행렬의 호화로움과 시집의 가난을 대비, 괴송사설 이후에 계녀 내용이 비대해짐.” 윤주필, 『우산본 <복선화음록>의 특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290면.

5) 언간에 관한 기존의 성과는 다음 책을 참조할 수 있다. 황문환, 앞의 책.

6) 김종철, 『<언간독> 연구 - 작품 교재의 관점에서』, 『국어교육연구』 3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5.

7) 최지너, 『<언간독>(諺簡牘)과 한글편지를 통해 본 근대의 풍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9.

8) 장요한,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본 『언간독』의 서지 및 구성 체제 연구』, 『동서인문학』 57,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장요한,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본 『諺簡牘』과 이본 『諺簡牘 抄』의 비교 연구 및 ‘고령가곡녀자들등님곡’ 가사 주해』, 『서강인문논총』 57, 서강대학

한글 편지 서식인 ‘방각본 인간독’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필사했을 뿐만 아니라 사돈지 등 여성을 위한 한글 편지 서식인 ‘언간수록’과 경북 고령 가곡 인근을 무대로 한 가사 ‘고령가곡녀즈들등님곡’ 등 여러 글쓰기 양식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자료는 규방가사와 인간독이 합철된 문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⁹⁾ 이 점은 『여자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한다.

노래와 편지라는 서로 다른 글쓰기 양식이 함께 수록된 현상은 여성들이 편찬한 필사본이 다양한 맥락 속에서 편찬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¹⁰⁾ 『여자가』를 포함해 이들 자료에 노래와 편지로 대변되는 규방가사와 인간독이 함께 수록된 현상은 여성들에게 이들 글쓰기 양식이 특별한 연결 지점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래와 편지 즉 규방가사와 인간이 합철된 자료는 연구자들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¹¹⁾ 이에 이 글은 규방가사와 인간이 함께 수록된 현상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시론으로 『여자가』의 서지와 구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여자가』에 수록된 규방가사와 인간독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려고 한다. 비록 시론에 불과하지만, 이 글을 통해 노래와 편지가 함께 수록된 자료에 관한 연구자들의 탐험이 시

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 9) 필자는 장요한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사 ‘고령가곡녀즈들등님곡’을 읽은 이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고령의 가곡을 떠올리며 향수를 달래고 자부심을 느꼈고, 이러한 점이 해당 작품이 다른 인간독 자료와 함께 유통된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보았다. 또한, 후속 과제로 규방가사와 인간이 합철된 자료를 추가로 연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기선, 『가사 <고령가곡녀즈들등님곡이라>의 성격과 문화적 의미』, 『한국학논집』 9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3.
- 10) Victoria E. Burke, Manuscript miscellanies, Laura Lunger Knoppers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Early Modern Women's Writ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62.
- 11) 필자는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대상으로 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1908년 충남 임천에서 필사된 『부인치가사』에서 <부선화음가>의 이본인 <치가사>와 불교가사인 <회심곡이라>와 평민들의 편지교제인 방각본 인간독이 함께 실린 것을 보고, 『부인치가사』가 하층의 불특정 다수를 염두에 둔 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 1924년에 필사된 『언간요초』에서 방각본 인간독과 <부선화음가>의 이본인 <부선화음록>이 함께 실린 것에 대하여 “세지갑즈 원월의 쓰노라 / 이우의 쓰인 간독편서와 이 화음곡이 어룬 아히 업시 불측한 책이로다”라는 필사기를 토대로 『언간요초』도 하층의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설정하고 있다고 추정할 바 있다. 규방가사와 인간독이 함께 수록된 현상과 관련해 이들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기선, 『자료적 특성으로 본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주체구현 방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30~131면.

작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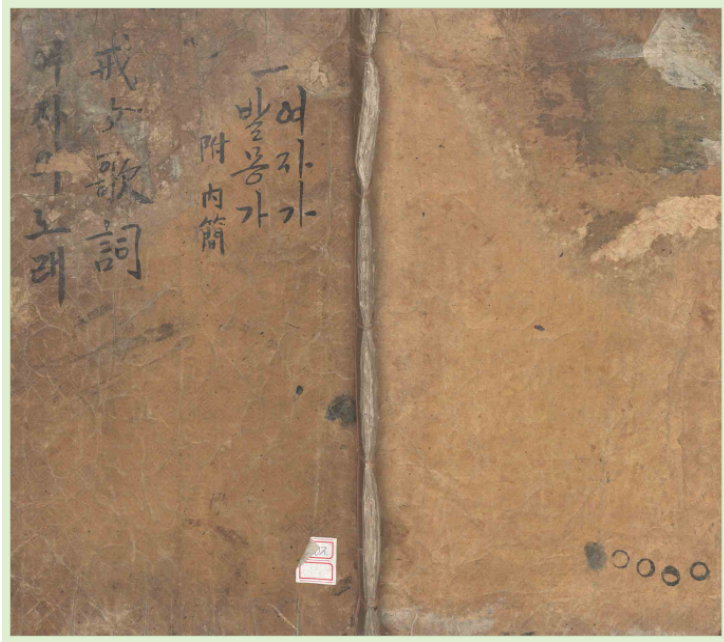
II. 『여자가』의 서지와 구성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에 소장된 『여자가』는 본래 나손 김동욱 선생의 소장본이었다. 앞서 <복선화음가>의 이본 현황을 정리한 성무경의 언급이나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에서 나손 김동욱 선생의 소장본을 정리한 『나손문고목록(羅孫文庫目錄)』 등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²⁾ 현재 『여자가』는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누리집에서 자유롭게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가』는 가로 20.8cm×세로 32.7cm, 26장 52면 분량의 필사본으로, 한국의 선장본 고서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오침안정법(五針眼釘法)으로 장정되어 있다.¹³⁾ [그림 1]을 보면 표지에 적혀 있는 여러 내용이 눈길을 끈다. 먼저 제첩(題簽)이 있었을 자리에 “戒女歌詞”와 “여자의 노래”라는 내용이 크게 적혀 있다. 책의 주요 내용을 적는 편목(篇目)이 있을 자리에는 “—”를 긋고 그 아래 오른쪽에 “여자가”가, 그 왼쪽에 “발몽가”가, 다시 줄을 바꾼 오른쪽 아래에는 조금 작은 글자로 “附 內簡”이 적혀 있다. 글자의 배치나 크기를 고려할 때 『여자가』의 서명은 “여자의 노래”가 적절한데,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에서는 편목에 적힌 “여자가” 즉 문헌에 첫 번째로 수록된 가사 <여자가>를 서명으로 사용했다.

12) “戒女歌詞. 寫本. [光武10(1906)] 1冊. 32.7×20.8cm.”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편, 『나손문고목록(羅孫文庫目錄)』,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1991, 206면.

13) 필자는 2025년 2월 11일 국문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이후, 『여자가』의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2025년 4월 22일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을 방문하여 『여자가』를 직접 열람했다. 실물을 확인한 결과, 이 책은 상당한 정성을 들여 제작되었고, 현재까지도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정은 단단하게 되어 있었으며 표지 바탕의 사방연속의 회(回)자문도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림 1] 『여자가』의 앞표지와 뒤표지

서명으로 쓴 “여자가”와 “여자의 노래”의 필체가 서로 다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사람이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명을 적는 자리에 “여자의 노래”라고 쓰면서 “녀즈”가 아닌 “여자”를 표기한 점이나 ‘누구의 노래’라고 명명한 것은 다소 이색적이다. 왜냐하면 규방가사 작품을 필사한 책에서 이 같은 제목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가>가 계녀가인 <복선화음가>의 이본이라는 점에서 시집가는 여성에게 교훈과 경계를 전달하는 계녀가류와 비교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의 작품은 잘 보이지 않는다.¹⁴⁾ 그리고 그 옆에 현대적으로 “戒女歌詞”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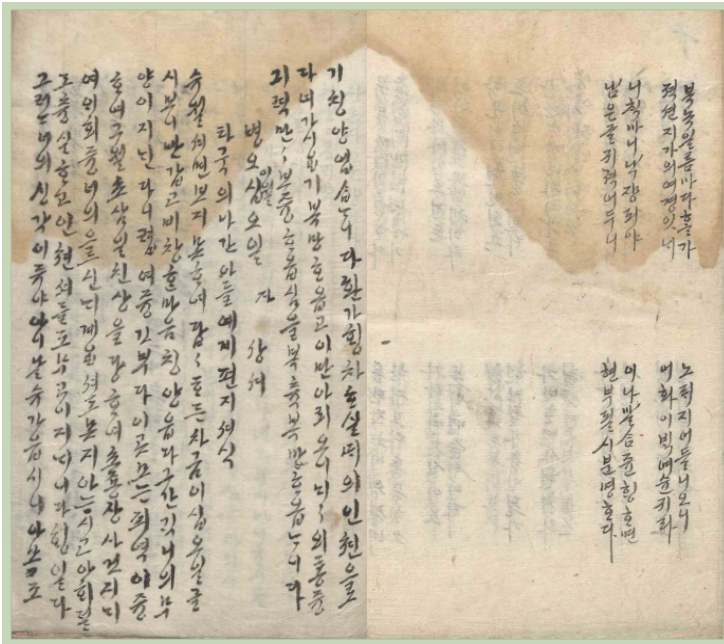
14)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규방가사』 I에 수록된 계녀가류는 “1) 權本 誠女歌 2) 계여가 3) 훈시가 4) 福善禍淫歌 5) 신행가 6) 행실교훈지라 7) 훈민가 8) 규방정훈 9) 회인가 10) 규문전회록 11) 경계사라 12) 여아슬피라 13) 권실보아라 14) 부여교훈가”이고, 최근에 경북지역 내방가사를 조사 정리한 『경북 내방가사 1 - 계녀가류 탄식가류』에 수록된 계녀가류는 “1. 개녀가 2. 계여가 3. 겨여가 4. 경계가 5. 경계사 6. 경리가 7. 경지사라 8. 계여가 9. 계여가라 10. 교여가 11. 규중교훈가 12. 여자경계가 13. 여자 교훈가 14. 훈민시”다. 이들 작

는 주제적 분류에 가까운 제목이 사용된 것도 상당히 독특하다. 책의 외관을 보호하고, 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표지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여자가』의 편찬이나 필사가 조선시대 이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실물을 확인해 보면 해당 자리에 제침이 있었던 흔적을 알 수 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戒女歌詞”와 “여자의 노래”라는 구절이 적혔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여자가』의 구성을 살펴보면, 『여자가』는 2편의 가사(<여자가>, <발몽가>)와 1편의 불완전한 글과 12편의 편지와 관련 서식(타국의 나간 아들에게 편지 서식, 사돈사이 조장이라 소상장, 답소상장, 상쳐흔디 위문, 어린아달 일흔디 위문, 답장, 손아보아라, 할마님전 상답서, 지외흔 난편의 게 먼저 편지하는 서식, 답상장, 시모의기 전서식 어머님전 상서, 친모친의 게 흐는 조장)이 수록되어 있다.

『여자가』의 본문에는 광곽(匡廓)과 계선(界線)이 없다. 첫 번째로 수록된 가사 <여자가>는 줄글로 18면에 걸쳐 필사되어 있고, 이어지는 가사 <발몽가>는 줄글이 아닌 귀글로 18면에 걸쳐 필사되어 있다. <발몽가>가 끝나면 지면을 바꾸어 “기 칭양 업습느니다”로 시작하는 1편의 글이 이어진다. 그 글이 끝나면 “타국의 나간 아들에게 편지 서식”을 비롯한 12편의 편지와 관련 서식이 16면에 걸쳐 필사되어 있다. 가사 <발몽가>가 끝나고 지면을 바꾸어 “기 칭양 업습느니다”로 시작하는 글이 이어지는 부분은 [그림 2]와 같다.

품과 비교해 보면 계녀가로 <여자가>의 제목이 독특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권영철, 『규방가사』 I, 정신문화연구원, 1979; 전제강 외, 『경북 내방가사 1 - 계녀가류·탄식가류』, 북코리아, 2016.



[그림 2] 가사 <발몽가>가 끝나고
『타국의 나간 아들에게 편지 서식』이 시작되는 부분

가사 <발몽가>가 끝나고 다음 장에 이어지는 “기 칭양 업습느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판독하면 아래와 같다.

기 칭양 업습느니다 환가형차 허실씨의 인천으로 다녀가시옵기 복망하옵고
이만 아뢰오니 너; 외통중 기력 만; 보중 허읍심을 복축복만 허읍느니다

병오 십^{이월}오일 자 상서

이 글은 다소 불완전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한 근거는 글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고, 맥락도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히 무엇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글쓴이는 ‘축량할 수 없습느니다’라고 자신을 한껏 낮춘 다음, 글을 읽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천에 다녀가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면

서 글을 읽는 사람의 기력을保重(保重)할 것을 거듭 바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맥락상 측량할 수 없는 것은 글을 읽는 사람의 뜻이나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말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¹⁵⁾

그리고 글쓴이가 글 읽는 이에게 인천에 다녀가라고 권한 것은 아마도 현재 자신이 인천에 머물기 때문일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에게 자신이 있는 곳에 방문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에나 가능하다. 글쓴이가 이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볼 때 글쓴이와 글을 읽는 사람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일자를 쓴 부분을 보자. ‘병오 십’ 위에 ‘이월’이 부기되어 있고, ‘자’는 다른 글자와 비교해 조금 작게 적었다. 여기에서 ‘자’는 자식(子息)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글자에 비해 글자 크기를 상대적으로 작게 쓰는 방식인 자소법(字小法)이 사용된 것은 글을 쓴 사람이 글을 읽을 사람에게 예의를 표현하기 위해서다.¹⁶⁾ 그러면서 글쓴이는 글을 읽는 사람이 윗사람일 때 쓰는 ‘상서[上書]’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 글이 단순한 필사기가 아니라 편지임을 추측하게 한다. 『여자가』에 수록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어마님전 상서”의 ‘상서’처럼 말이다. 이 편지는 “병오구월일 ; 조부 상소리”라고 끝나는데, 여기에서 ‘상소리’는 바로 ‘상서’의 우리말식 표기이다. 같은 병오년에 작성된 편지에서 글을 읽는 이가 글쓴이보다 윗사람일 때 사용하는 ‘상서’나 ‘상소리’가 사용된 것은 가사 <발몽가>가 끝나고 지면을 바꾸어 “기 청양 업습느니다”로 시작하는 글이 편지의 일부임을 말해준다. 해당 부분을 필사기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필사를 완성하고 난 후 자기 나름의 생각이나 느낌을 남기는 필

15) 『여자가』를 직접 열람하기 전까지는 촬영된 이미지를 파일로 옮기는 디지털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내용의 순서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나 책의 일부가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실물을 직접 확인한 결과, 『여자가』는 [그림 2]와 완전히 일치했으며 훼손된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불완전한 내용이 그대로 수록된 것은, 설령 내용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여자가』의 편찬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6) 언간은 본문에서 예의를 표현하는 비언어적 경어법 장치로 이행법(移行法), 이격법(離隔法), 공극법(空隙法), 대두법(擡頭法), 자소법(字小法)이 있다. 존대하는 대상과 관련된 어휘를 다른 행의 글자보다 더 높게 올려 쓰는 방법이 대두법이라면 자소법은 글쓴이를 겸칭할 때 글자 크기를 더 작게 쓰는 방법을 말한다. 해당 방식에 관해서 이종덕은 차소법(差小法)이라고 부르고 있다. 백두현, 『한글문헌학』, 태학사, 2015, 196~198면.

불리는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외국에 문호를 개방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타국에 나간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은 국제우편 체계가 갖추어져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조선의 우체 제도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1884년 10월 17일 김옥균·박영효·홍영식 등의 개화파가 우체 업무를 관장하는 우정총국(郵政總局)에서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키면서 근대화의 선행 사업으로 추진했던 우편 업무는 전면 중단되었다. 1893년에 비로소 우편 사업이 재개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1900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국제우편이 가능해졌다.²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편지에 적힌 병오년은 1906년일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증거는 마지막 편지인 『친모친의게 흐난 조장』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편지는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딸이 보낸 것으로, 본인이 병에 걸려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자 부산에 가서 제일 먼저 편지를 보냈다고 내용이 담겨 있다. 편지에는 발신자인 딸과 수신자인 어머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딸이 부산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발송했다는 사실은 당시 전국적으로 발달한 우편망을 활용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병오년은 1906년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내용이 일부 생략되고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은, 언뜻 불완전해 보이는 편지가 수록된 것은 그 편지가 『여자가』의 편찬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이 편지는 병오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같은 해 9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어마님전 상서”보다 약 3개월 뒤에 작성되었다. 시기상 늦게 작성된 편지를 앞에 배치한 것은 『여자가』가 단순히 편지를 시간순으로 모아 놓은 책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앞

20) 조선은 1887년 전보총국(電報總局)을 신설하여 전신 사무를 관장했고, 1893년 우체 사무를 신설하여 전우총국(電郵總局)을 설치했으나 청나라의 반발로 해당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다. 1895년 청일전쟁(淸日戰爭)이 끝나고 이듬해 1896년 아관파천(俄館播遷)이 끝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으로부터 전신시설을 인수했고, 주요 도시에 우체사와 전보사 등 관련 기관을 설치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제국은 1898년 지방 각 군에 임시우체제도를 시행하여 전국적인 통신망을 확보했으며 1898년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에 가입했는데, 국제우편은 1900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실시할 수 있었다. 통신원(通信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9356>>, 검색일: 2025. 1. 28.

의 [그림 2]를 통해 가사 <발몽가>의 서체와 『타국의 나간 아들에게 편지 서식』의 서체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여자가』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 의해 필사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²¹⁾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자가』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 의해서 필사되었으며 1906년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2편의 가사, 1편의 제목 미상의 불완전한 편지, 12편의 편지와 관련 서식이 수록되어 있다. 『여자가』에 수록된 노래와 편지, 각각의 글쓰기 양식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 살펴보겠다.

III. 『여자가』에 수록된 규방가사 2편: <여자가>와 <발몽가>

『여자가』에는 <여자가>와 <발몽가> 2편의 가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2음보를 1구로 계산할 때 줄글로 된 <여자가>는 대략 1,350구이고, 귀글로 된 <발몽가>는 512구이다.

<여자가>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대표하는 <복선화음가>의 이본이다. <복선화음가>는 ‘여성 화자의 일생 - 계녀 사설 - 괴퐁어미의 일생’이라는 액자 구조 속에서 가사체 형식을 기본으로 하되, 이를 변형한 다양한 이본이 존재하는 계녀가 유형이다.²²⁾ 앞서 선행 연구에서 거듭 강조한 것처럼 <복선화음가>는 이본이 상당히 많다. <복선화음가>의 이본을 내용과 형식에 따라 3가지 계열로 정리한 윤주필에 따르면 <복선화음가>의 이본은 화자의 개인 서사를 강조한 기본형인 I 계열, 계녀 사설에 행동 강령과 생활적 지식을 추가하여 교술적 내용을 확대한 변이형인 II 계열, 괴퐁어미의 일생을 약화하고 화자의 신분을 상층 가

21) 그리고 『여자가』에는 가사 작품이 필사된 부분에 쪽 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가사 <여자가>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이어지는 가사 <발몽가>에는 한글로 쪽 번호가 적혀 있다. 그런데 언간에는 쪽 번호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 번호가 『여자가』를 필사한 이가 직접 기입한 것인지, 아니면 이후 연구자가 추가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동일한 필사본에서 쪽 번호의 표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 점은 서체의 차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점이다.

22) 윤주필, 앞의 논문, 285면.

문으로 변경하여 가문 서사로 확대한 변이형인 III계열로 구분된다.²³⁾

이 중 <여자가>는 II계열에 속한다. 실제로 <여자가>는 괴퐁어미가 시집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양화를 받는 내용을 서술한 다음, 이 같은 괴퐁어미의 일생을 볼 때 복선화음(福善禍淫)²⁴⁾이 틀림없다고 천명한다. 그러고는 대표적인 여성 교훈서인 『내칙(內則)』과 『열녀전(列女傳)』을 인용하여 계녀 사설을 이어간다. 그런데 인용한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교훈서의 원문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익히 알만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넉칙이란 칙의 호여시되 머나리가 구고을 섬기면 닥이 울거든 세슈호고 머리 빛고 쪽지고 시옷입고 좌우의 향낭차고 구고계신데 가서 기운을 나리고 소리를 편안니호야 웃디 더운가 찬가 물으며 아푸고 기려운 테을 물어 공경호야 글그며 구고가 나가고 드리오시거든 공경호야 무르며 호고자 흥너바을 공경호야 들이고 부드러운 빛츠로호며 구고계서 다본후의 나오며 구고곶테 잇서 명호시거든 공경호야 디답호며 감히 토악질호고 터림호고 기침호고 계시키거고 기울러지게 서며 흘겨보며 침비지 못호고 추어도 썬입지 안니호고 갈려위도 극지못호고 덜러운 옷과 이불속을 뵈지 아니호며 부모의 가리침 비든거설 남뵈이지 말며 옷시 더러우거든 빨기를 청호며 옷시 터지거든 깎기를 청호며 겨울의는 더웁썬 호며 저물면 자리와 이불을 퍼드리고 시벽이면 편안호 거슬 문는니라

“넉칙이란 칙의 호여시되”라고 했지만, 실제 내용은 머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화자는 청자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얼굴 빛과 말투를 온화하게 하여 시부모를 공경하고, 그 곁에서는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삼가야 하며, 저녁에는 시부모의 잠자리를 살피고 새벽에는 문안 인사를 드리는 혼정신성(昏定晨省)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열녀전』도 마찬가지다. “넉녀전의 꼴오되”라고 하면서 화자는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妊)을 거론하며 그녀의 행실을 본받으라고 말한

23) 윤주필, 앞의 논문, 281~310면 참조.

24) 복선화음은 본래 『서경(書經)』 『탕고(湯誥)』에 “하늘의 도는 선인에게 복을 내리고 악인에게 화를 내린다. 그래서 하나라에 재앙을 내려 그 죄를 드러나게 한 것이다”(天道 福善禍淫 降災于夏 以彰厥罪)”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다.²⁵⁾ 여기에서 언급된 태임의 행실은 문왕을 임신했을 때의 언행과 가사를 위해 헌신한 모습으로, 여성에게 경계를 전하는 다른 계녀가에서도 보이는 내용이다.

주지하다시피 <복선화음가>는 긍정형 여성 인물과 부정형 여성 인물을 대비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끌고, 여성 인물의 삶에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구현한다. 그런데 <여자가>는 <복선화음가>만의 특징인 여성 인물을 활용하는 액자구조를 유지하면서 『내칙』과 『열녀전』 등의 교훈서를 인용하여 계녀 사설을 다시 한번 서술한다. 이 같은 방식은 <여자가>의 말미에서도 계속된다. 부부가 서로를 손님 대하듯 공경했다는 [敬相待如賓] 극결(卻缺),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받들지 않는다[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는 말을 남긴 왕촉(王蠋),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으나 남편 포선(鮑宣)의 뜻을 따라 많은 혼수와 종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시부모를 모시며 검소하게 생활한 환소군(桓少君), 남편 양홍(梁鴻)을 공경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음식상을 이마 위에까지 들어 올렸다는 거안제미(擧案齊眉)의 주인공 맹광(孟光) 등의 인물을 활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여자가>는 당대인이 진리로 여겼던 유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기존의 유교 이념과 관련 규범을 활용하여 여성에 대한 경계를 강조한다.

이 같은 주제구현 방식은 이어지는 가사 <발몽가>에서도 확인된다. <발몽가>의 제목 발몽(發蒙)은 지식수준이 낮거나 의식이 덜 깬 사람을 깨우쳐 준다는 뜻으로, <발몽가>의 화자는 유교 이념에 의거하여 청자를 계몽하려는 태도를 보인다.²⁶⁾

25) “열녀전의 굴오되 예적 티임은 잉티흐미 자리를 끼우리지게 아니흐며 안끼을 가의 아니흐며 서기를 끼울어지게 아니흐며 음식이 바르게 베이지 아니흐면 먹지아니흐며 자리가 발오지 아니흐면 안지 아니흐며 눈으로 간사흔 빗츨보지 아니흐며 귀으로 음난흐 소리를 듯지 아니흐디니 문왕갓튼 성인을 나서 주나라 팔빅년 괴업을 누리고 티사는 문왕의 후비로 친이 길삼히고 제사를 정성으로 맞들고 첩이 만오되 투괴호지 아니흐는 고로 자손이 만나 할우살이의 비호고 자손이 어지러 괴린의 비호고 금실과 종고의 절거음이 고금의 옷씀이니 옷지 번밧지 아니흐랴”

26) 한편 <발몽가>의 이본이 1920년에 펴낸 『부인요람서』에 수록된 것이 확인된다. 해당 자료는 가사문학D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천유지 허신후의 음양오행 니기로다
 동서남북 정방하고 춘후추동 정시하니
 산장슈장 흠올적의 만물조차 삼겨잇니
 엇지이론 만물인고 더강 : : 일로리라
 터럭가진 증성이요 날기잇는 금조로다
 쑤적 : : 벌어지며 비울 : : 고기로다
 이것저것 허다흔것 산슈간의 미만허다
 평원광야 도라보니 사람이 여기잇고나
 이사람덜 들어보소 어이허야 사람인고
 오행정기 바다나서 오행덕성 갓초완비
 괴이허다 참위삼직 아름답다 유차삼강
 천지임의 니오시니 잇뜻우지 범연혈가
 네적말삼 듯자오니 말물중의 인최괴라
 성인군자 나신후의 열녀정부 되야세라
 엇지이론 귀후온고 인의네지 홀노잇니
 저증성 언논의를 이니사람 가져잇니
 저증성의 업논의를 이니사람 지여잇니
 저금슈의 못흔네도 이니사람 갓초잇니
 저금슈 못만흔지혜 이니사람 갓초잇니
 저금슈의 업논신을 이니사람 유신코나
 다섯가지 이성품을 증성본디 업것마는
 사람의게 홀노잇니 이것아니 귀홀소야

위는 <발몽가>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현상적 칭자를 따로 설정하지 않은 채 “유천유지 허신후의 음양오행 니기로다”라며 곧바로 세계의 근본 원리인 천지(天地)와 음양오행(陰陽五行)을 제시하고, 만물이 생성된 이유를 설명한다. 만물을 “터럭가진 증성이요 날기잇는 금조로다 / 쑤적 : : 벌어지며 비울 : : 고기로다”라며 길짐승과 날짐승과 물고기로 구별하고, 사람의 본성을 오행정기(五行精記), 오행덕성(五行德性), 삼재(三才), 삼강(三綱), 성인군자(聖人君子), 열녀정부(烈女貞婦),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등 다양한 유교 담론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유교 담론을 활용하여 교훈을 전달하는 이 방식은 작품 전체에 고루 사용되었다. 그런데 <발몽가>는 앞의

<여자가>와 비교해 조금 다른 여성관을 보인다.

요순도덕 공맹인의 일월갓치 발가있니
 발근인의 발근도덕 너흐자면 너게있니
 요순공맹 마다하고 자포자기 즐겨하면
 돛과기가 갓가왔니 천산 볼것업다
 이는이러 흐거니와 여자또호 들리보소
이목구비 오장육부 사니회와 다들손가
어진마음 어진행실 남자에서 못홀손가
삼강오륜 발그니는 남녀일반 갓다흐테
 부싱모혹 그은혜야 여자은덜 모로올가
 먹고임는 그은턱은 나라힘이 너게있니
 부창부슈 담습호소 출가후후 긴흐오리
 어른보고 공경하면 내아니코 웃지홀고
 인의간의 신실하면 착흐올사 저너편니
 이런ᆫ 호온일이 규중의도 제일리라
 삼종지의 빙화두소 물나서는 쓸디옵니
 집의잇서 아버죿고 출가흐미 지아비라
 자이비가 가이옵거든 저자식을 좇차세라
 더소사의 문의호야 제라혼자 결단마소
 부녀되여 천신형사 더욱각별 조심호소
 사랑홈도 너게지고 천허움도 너게인니

여전히 <발몽가>의 화자는 ‘요순도덕’, ‘공맹인의’, ‘삼강오륜’, ‘인의’ 등의 유교 이념과 ‘삼종지의’ 등의 규범을 강조하며, 이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규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밑줄 친 구절에서 화자는 여성을 현상적 청자로 설정한 뒤, ‘이목구비’와 ‘오장육부’를 갖춘 존재로서 남성과 다르지 않으며, ‘여자’의 ‘어진 마음’과 ‘어진 행실’ 또한 ‘남자’ 못지 않다고 평가한다. 더 나아가 삼강오륜의 이치는 남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화자가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여전히 삼종지도에 따라 여성은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 후에는 남편을, 남편 사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하며, 대소사를 혼자 결정하지 말아야 한

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유교 이념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데 남녀를 보편적 존재로 인식한 점은 <여자가>의 여성 인식과 비교해 진전된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복선화음가>의 이본인 <여자가>와는 다른 여성 인식이 <발몽가>에 나타난 것은 『여자가』가 편찬된 1906년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²⁷⁾

1906년 이후에 편찬된 『여자가』에 수록된 <여자가>와 <발몽가> 모두 여성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한 규방가사다. <여자가>는 긍정형 여성 인물과 부정형 여성 인물을 대비하는 <복선화음가>의 액자 구조를 유지하면서 계녀 사설을 확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반면 <발몽가>는 유교 이념과 규범을 강조하면서도 기존의 여성 인식과는 다른 여성 인식을 함께 담아냈다. 이러한 변화는 전국적인 우편망이 발달하고 국제우편까지 가능해지는 등,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20세기 전반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만으로는 <여자가>와 <발몽가>를 창작하고 향유하던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내칙』과 『열녀전』을 비롯한 유교 교훈서와 중국 고사 속의 인물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유교 문화에 대한 일정한 교양을 갖추고 그 중요성을 이해했던 계층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해당 교훈서를 직접 인용하지 않았으며, 사서오경과 같은 정통 경전의 내용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자가』는 기존의 전통적인 양반 문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여자가』의 작자와 향유자, 편찬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언간을 분석하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27) 여기에서 인용한 “요순도덕 공명인의 일월갓치 발가있니 / 발근인의 발근도덕 니흐자면 니게잇너”라는 구절과 “부녀되어 천신형사 더욱각별 조심호소 / 사랑흠도 니게지고 천허음도 니게잇너”라는 구절을 보면, <발몽가>의 화자는 부녀도 인의와 도덕을 실천할 수 있다는 존재이며, 나아가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인식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IV. 『여자가』에 수록된 한글 편지 13편:

『타국의 나간 아들에게 편지 서식』 외 12편

『여자가』에는 제목 미상의 불완전한 편지를 포함해 13편의 인간이 수록되어 있다. 제목 미상의 불완전한 편지 1편을 제외한 나머지 편지들은 모두 제목이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편지는 기본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용건을 주고받는 글쓰기이므로 해당 편지의 성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함께 알아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13편의 제목과 발신자와 수신자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번호	제목	발신자	수신자	비고
1	미상	아들	부모	훼손
2	타국의 나간 아들에게 편지 서식	어머니	아들	
3	사돈사이 조장이라 소상장	안사돈	안사돈	
4	답소상장	안사돈	안사돈	
5	상쳐훈디 위문	동생	형/오빠	
6	어린아달 일훈디 위문	동생	언니	
7	답장	언니	동생	
8	손아보아라	할머니	손자	
9	할마님전 상답서	손자	할머니	
10	지외훈 난편의게 먼저 편지하는 서식	아내	남편	
11	답상장	남편	아내	
12	시모의기 전서식 어머니전 상서	며느리	시아머니	
13	친모친의게 훈는 조장	딸	어머니	

먼저 제목을 살펴보면 안부, 문안, 위문 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신자와 수신자는 주로 가까운 가족 구성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이 대부분의 발신자와 수신자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편지가 「사돈사이 조장이라 소상장」과 「답소상장」이다.²⁸⁾ 「사돈사이 조장이라 소상장」은 바깥사돈의 상사를 당한 안사돈을 위로하기 위

28) 이같이 안사돈끼리 편지를 주고받은 사례는 『언간독』에서도 확인된다. 『언간독』에서는 「사돈의게 훈는 편지」와 「답장」으로, 『증보언간독』에는 「시사돈의게 훈는 편지」와 「답장」이 있다.

해서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시댁의 안사돈에게 보낸 편지이고, 『답소상장』은 앞의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다.

사돈사이 조장이라 소상장

밧스돈 상사 말슴이야 지필을 임호와 다시 무산 말슴을 알외오릿가 병환이
아모리 침중호시오나 년세 놓지 아니호시고 허물며 남의 업손 승순호신 성심으
로 회춘호심을 바라시다가 일쥬의 화변을 당하시오니 (중략)

월일 스돈 소상장

답소상장

이곳즌 사문이 불행호와 일쥬의 분성지통을 당호오니 망극호은 말삼 엇지 붓
슬 들어 알외오릿가 (중략) 나리 너외 아직 무고호오니 기형이로소이다 알외음
첩 ; 호오나 정신어득 이만 그치압나니다

팔월일 사돈 답소상장

『사돈사이 조장이라 소상장』의 경우, ‘바깥사돈’이라는 호칭과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른 글자에 비해 작게 쓴 ‘스돈’을 통해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를 드러낸다.²⁹⁾ 그것의 답장인 『답소상장』에서는 남편의 죽음을 뜻하는 붕성지통(崩城之痛)과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다른 글자에 비해 작게 쓴 ‘스돈’을 통해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를 드러낸다. 이들 편지를 통해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안사돈의 경우 서신으로 조문을 대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처흔디 위문』과 『지외흔 남편의게 먼저 편지하는 서식』의 답장인 『답상장』을 보면 『여자가』에 수록된 편지들이 여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주고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처흔디 위문』의 경우, “몽미밧게 형은 고줄리 끈침을 당호야 참달지

29) 해당 편지에서는 “사회 너외도 무고히 부지호옵관지”라며 사위를 앞세워 시집에 있는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완곡하게 표현했다.

극의 엇지 감역호는잇가 옛사람의 동의을 두다리고 통곡호는 희포를 억제 호고 스스로 앓감을 진중히 호야 모든 아히로 호야금 밋음이 잇게호면 귀 부인이 또호 구원에서 우음을 먹음으실지라”라며 참달지극(慘怛之極)을 겪은 형에게 하는 편지로, 아내가 죽었을 때를 뜻하는 고사인 고분(鼓盆)³⁰을 사용하여 이 편지의 수신자가 아내를 잃은 남편임을 보여준다.

이어서 부부간에 주고받은 편지인 『지의호 난편의게 먼저 편지하는 서식』과 그 답장인 『답상장』은 아래와 같다.

지의호 난편의게 먼저 편지하는 서식

집을 썬나길의 오을실 씨의는 춘풍이 화충호야 빅화 난만호고 양유의 ; 호읍 드니 어인간 심동이 되와 산복산남에 싸인 눈이 물결갓고 지창풍녘의 녕계가 썰을 뜯고 살을 벗히는듯 호미 이더을 당호여는 마음이 빈다 승호읍느니다 디져 이런 심호 치위에 깃중 거거연호야 안강호시고 소영스도 여의 순성지망을 으더 기시오넷가 쥬소축쳐호읍느니다 첩은 즈녀들을 거느리고 의구히 잘 잇스오며 아히들은 다 학교의 보니여 공부시기오니 가루의 관심은 조금치도 마시웁고 더욱 드슬 국게호오서 진취지망이 잇게 호시웁소서 (하략)

답상장

옷깃슬난 노고 집을 썬난온지 년짓 일년이 되어 가오미 저간춘풍 추월과 하지 일동지야의 무한호 깃회여 한의 구곡춘중이 구비 ; ; 살아지든 말슴을 잊지 다호오리가 다시 업동설한 잇더을 당호오미 혼즈 편호게 잇는이 사람에 걱정은 조금치도 읍거니와 멀니 생각건더 풍창파벽의 녕기를 무릅쓰고 여러 즈식들호고 무한호 고성호시는 일 오미간의 잠시 이치지 안스올제 음의거야의 등화 찬란호고 금조의 회작이 지져귀드니 모림출서함을 접호호오미 서군의 흥거연길호시고 아히드리 출건호다 호오니 바라든 회포가 혼위무랑이오이다 졸부는 세군의 원역을 입어 몸이 무랑호고 일이 성취되여가니 두루 상쾌호오며 아히들른 학교의 보니여 공부을 식인다 호섯스니 아모조록 망일치 아니케 동독호오서 시간을

30) 동이를 두드린다는 고분(鼓盆)은 고분지통(鼓盆之痛)의 또 다른 표현으로, 『장자(莊子)』에서 유래했다. 장자(莊子)가 일찍이 처상(妻喪)을 당했을 때 그의 친구 혜자(惠子)가 조문을 가서 보니, 두 다리를 죽 뺀고 앉아서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아내를 여윈 슬픔을 이른다.

일치 말고 여러 학도 종류에 명의를 으더야 세속 스람들의기 스랑흠도 입는거시오 (하략)

『지외혼 남편의게 먼저 편지하는 서식』에서 아내는 계절의 대비를 통해 추운 겨울 홀로 있을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한다. 이어서 남편에게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근황을 전하면서 집안 식구들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라며 남편을 위로한다. 이에 대한 답장인 『답상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첫인사에 답하듯 계절의 변화를 언급하며, 비록 엄동설한이지만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내를 안심시킨다. 그러면서도 자식들과 함께 고생하는 아내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수신자인 아내를 위로하고, 아이들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감독할 것을 당부한다. 나아가 여러 학생 중에 명예를 얻어 세상 스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자라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아내에게 조언한다.

4편의 편지를 분석한 결과, 『여자가』에 수록된 편지들은 특정 성별에 한정되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 간에 주고받은 것이며, 일부 편지는 답장이 없지만 답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편지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이 13편의 편지를 모았을까? 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이 없기에 필사자 또는 편찬자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타국의 나간 아들에게 편지 서식』과 『손아보아라』에서 언급된 ‘상점[商店]’을 통해 이들 편지를 주고받은 이들의 사회적 배경을 일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먼저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타국의 나간 아들에게 편지 서식』을 살펴보면 발신자인 어머니는 수개월 동안 아들의 편지를 받지 못해 걱정하던 중 이번 25일에 편지를 받아 반갑다면서 비록 친상(親喪)을 당했지만 가족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소식을 전한다. 이어서 아들 생각이 주야로 난다며 건강을 당부하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한다.³¹⁾ 그런데

31) “타국의 나간 아들에게 편지 서식 / 슈월 서면 보지 못하여 답、혹은 차 금이십오일 글시 보니 반갑고 비창흔 마음 청양옵다 그간 직니의 무양이 지넌다니 렴여 중 것부다 이긱 모는 피역이 중하여 그월 초삼일 친상을 당하여 초종상사 것지여 인회중 너의 으르신니게 읍셔도 못지 아느시고 아희덜도 충실하고 인천셔들도 무고이 지니니 다행일다 그러느 너의 생각이

편지 말미에 “읍 삼월사릴 모셔”라고 쓴 다음에 줄을 바꾸어 “다른 상점으로 간다 흐엿스니 웃더하게 가잇난지 직세이 기별하기 밋는다”라는 추신을 덧붙였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추신을 통해 수신자인 아들이 타국의 한 상점에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상점으로 이직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상점[商店]’이 언급된 또 다른 편지 『손아보아라』를 살펴보자.

세상의 스템이 스는 것시 다 무엇신지 물니도 통하고 장스도 하고 세상경덕도 시길초로 너갓치 어린아히을 원방으로 보니여 네 고성도 어린나에 무던히거니와 니가 보고 심흔 마음 날 썩의는 진정 어렵구나 그러나 저리는 아모조록 조심하여 각지의 몸이나 안보하고 일이는 줄 보아서 괴이히 진취지망이 잇기하여라 네 고성되는 것과 니 보고 시푼 것슨 스소흔 정되오 물리의 혼죽하고 상업의 진취흐은 장원흔 전정이니 엿지 이스폐공이야 흐킵는냐 거기로 철노가 잇스니 틈잇거든 간; 단 너는 가게하여라 정보고 심흔 썩는 썩 밋칠 것 갓다 할미는 죽을날리 갓가와는지 성흔날리 읍스느 집안이 무고들 하니 흥일다 너의 아범은 여전니 회소의 스무보고 여가의 잠화상점의 가서 일 보살피다가 헝가 저야 집의 도라오는데 날마다 빠질 날리 읍스니 형역이 되어 병이 날가 겁이 난다 아모리 어려워도 예가 어느 썩까지 거긔 잇셔 물니 다 통하여 가주고 도라와야 상점으로 보니고 저는 회사이나 다니가다 하니 그도 그럴듯하다 네 직고 지리흔 생각을 흐든지 너여의 으른의 슈고를 생각흐든지 네 할미의 보고시버 하는 정성이을 생각흐든지 속속히 비을 것다 비오고 곳 도라오게 하여라 진지 하로가 숨썩갓다 이 엿슨 네가 평시의 질겨흐든 것시기 조금 고아 보니니 두고 시장홀제 먹어라 정신흔미하여 밋비 적는다 가간세쇄흔 말른 다른 편지의 잇쓸 듯 하고 너에 으른도 두어즈 적어 보닌다 하니 즈식이 다 보아라 연월일조모셔

이 편지는 손자를 그리워하는 할머니가 쓴 것으로, 13편의 편지 중 분량이 가장 길다. 마지막 부분에 손자가 평소 좋아하던 엿을 보낸다는 언급이 나타나듯, 이 편지의 분량이 긴 이유는 발신자인 할머니가 손자에 대한 그리움과 자식에 대한 염려 등 자신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회사 사무를 보면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상점 일을 돌보

썩야 아니날슈가 읍스니 아모조록 몸이나 잘 잇다가 속; 히 나와보기 바란다 훔말 무궁흐나 정신읍셔 이만 그친다”

는 상황을 걱정하며, 손자에게는 아버지의 수고와 자신의 그리움을 생각하여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속속들이’ 배우고 곧 돌아오라고 당부한다.

이 편지에 따르면 어린 손자는 먼 곳에 나가 장사 기술을 익히고 있으며, 손자의 아버지는 회사 일을 보면서 동시에 잡화상점을 운영하고 있고, 아들이 돌아오면 상점 경영을 맡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이 편지를 주고받은 이들은 상업에 종사하던 계층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이 ‘회사’의 ‘사무’를 보면서 ‘잡화상점’의 일을 돌본다는 내용은 이 편지가 근대적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20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3장과 4장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1906년 『여자가』를 편찬한 이들은 양반이 아닌 평민층, 그중에서도 상업에 종사하던 계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상업에 관한 편지는 19세기 편지 교재로 널리 사용된 『언간독』에서도 발견된다.³²⁾ 물론 『여자가』를 편찬한 이들이 모두 평민 출신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반 출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타국의 상점에서 근무하며 이직을 준비하거나, 자식을 멀리 보내 상업 기술을 익히게 한 뒤에 상점 경영을 맡기려는 사고방식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을 중시하던 전통 양반 계층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³³⁾

『여자가』의 편찬자는 「타국의 나간 아들에게 편지 서식」과 「지외혼 남편에게 먼저 편지하는 서식」에서 언급된 「서식[書式]」 즉 편지 서식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편지 서식을 익히는 일은 단순히 편지를 베껴 쓰는 데 그치지 않는다. 편지 서식에 관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서식에 담긴 소략한 투식을 보완하거나 목적에 맞게 다양한 투식을 조합하여 편지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³⁴⁾ 이러한 점에서 이들이 편지 서식을 제목에

32) 『언간독』에는 상고(商賈) 즉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고받은 편지인 <상고간 왕복 편지>, <물건 아니 맞는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남성들이 주고받은 국문 편지만을 수록한 『언간독』 상편에 이러한 편지가 실린 것은 평민층 중에서 상인층을 『언간독』의 수요층으로 끌어들이려 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인층이 상거래에 편지를 활발히 활용했음을 시사한다. 김종철, 앞의 논문, 251면 참조.

33) 이와 관련해 2025년 2월 11일 국문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에서 토론을 맡아주신 충북대학교 김아름 선생님께서 『여자가』에 수록된 편지들에서 관찰되는 언어적 특징을 통해 편찬자의 사회적 출신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다. 비록 필자의 역량이 부족해 이 글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나 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알려 주신 김아름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명시할 정도로 중시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편지 서식을 익히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편지를 읽고 쓰는 일을 중요한 예절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사돈사이 조장이라 소상장」과 「답소상장」의 경우처럼 조위(弔慰)를 목적으로 작성한 편지가 대표적이다.³⁵⁾ 그런데 「지의한 남편에게 먼저 편지하는 서식」과 「답상장」, 「손아보아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발신자는 단순히 용건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전하면서 동시에 수신자를 감정적으로 위로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기도 했다. 어떤 의미에서 『여자가』의 편찬자는 편지를 자기표현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³⁶⁾

지금까지 『여자가』에 수록된 13통의 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문 편지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편지는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혼인으로 연결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필수적인 사회적 의례를 수행하는 한편, 가까운 가족 간의 사연과 감정을 나누는 일상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아울러 편지 서식을 참조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글쓰기를 연습하고 학습하는 장으로도 사용되었다.

34) 본래 규식집은 초심자에게는 모방의 대상이지만, 경험이 쌓인 사람에게는 참조 및 변형의 모델로 활용된다. 『언간독』을 사용하는 사람들 역시 편지 작성 경험에 따라 서식을 그대로 베껴 쓰거나,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합하여 활용했을 것이다. 특히 『언간독』은 형식적인 부분만 숙지하면 큰 어려움 없이 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증보언간독』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기존 『언간독』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지녀, 앞의 논문, 232면.

35) 『언간독』의 편지 배열을 보면 『언간독』이 친인척 사이의 문안을 중시했고 그다음으로 타인과의 사교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문안 편지와 조위 편지가 모두 예절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예의 실천을 위한 소통과 순수한 사교를 위한 소통을 중심으로 『언간독』을 구성한 것이다. 이는 친인척 사이에 안부를 확인하고, 경조사에 축하와 위로를 하는 예의 실천으로서 편지 왕복이라는 문자 행위가 일반적이었던 조선 후기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중철, 앞의 논문, 257~258면 참조.

36) 최지녀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방각본 『언간독』이 조선 후기의 상층, 중간층, 하층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한글편지라는 수단을 통해 단일한 언어·문화의 공간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지녀, 앞의 논문, 238면.

V. 결론

이 글은 1906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소장 『여자가』에 수록된 규방가사와 인간의 구성과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고에서는 『여자가』에 수록된 규방가사와 인간 각각의 성격과 의미를 일정 부분 규명했지만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먼저 『여자가』는 하나의 일관된 필사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구성상 앞서 실린 규방가사 <여자가>와 <발몽가>는 모두 유교 담론을 활용하여 여성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한 작품이다. <여자가>가 긍정형과 부정형 여성 인물을 대비하는 <복선화음가>의 액자 구조를 유지하면서 계녀 사설을 확대해 교훈성을 강화했다면, <발몽가>는 기존 유교 이념과 규범을 강조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진전된 여성 인식을 드러냈다. 두 편의 규방가사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유교적 교훈을 전달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작품에 나타난 여성 인식과 주제를 구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어서 『여자가』에 수록된 13통의 편지들은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혼인으로 연결된 가족 간에 필수적인 사회적 의례를 수행하는 동시에 가까운 가족 간에 전하고 싶은 사연과 감정을 나누는 일상의 소통 수단으로 기능했다. 아울러 편지 서식을 참조하여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글쓰기 능력을 연습하고 학습하는 장(場)으로도 활용되었다. 편지의 배열 순서, 서체, 불완전한 편지를 수록한 사실 등을 볼 때 이들 편지는 단순한 자료 집성이 아니라 편찬자의 의식적인 선택이 반영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양식의 글쓰기가 하나의 책에 함께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은 ‘실용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실용성이라는 관점만으로 규방가사와 편지라는 글쓰기를 둘러싼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인간독』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편지 서식이 『여자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관련 자료를 보다 폭넓게 수집하고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노래와 편지로 대변되는 여성들의 다양한 글쓰기 양식 간의 관계와 그것의 문화적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기

존의 연구 성과는 물론 다른 문화권의 관련 논의도 참조하여 여성 글쓰기에 관한 연구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자료

- 『여자가』,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단행본

- 권영철, 『규방가사』 I, 정신문화연구원, 1979.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편, 『나손문고목록(羅孫文庫目錄)』,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1991.
백두현, 『한글문헌학』, 태학사, 2015.
성무경,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사, 2004.
전재강 외, 『경북 내방가사 1 - 계녀가류·탄식가류』, 북코리아, 2016.
황문환, 『조선시대의 한글편지, 인간』, 역락, 2015.
Victoria E. Burke, Manuscript miscellanies, Laura Lunger Knoppers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Early Modern Women's Writ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3. 논문

- 김중철, 『<인간독> 연구 - 작품 교재의 관점에서』, 『국어교육연구』 3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5, 237~281면.
윤주필, 『우산본 <복선화음록>의 특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281~314면.
장요한,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본 『인간독』의 서지 및 구성 체제 연구』, 『동서인문학』 57,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139~169면.
_____,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본 『諺簡牘』과 이본 『諺簡牘抄』의 비교 연구 및 ‘고령가곡녀자들등님곡’ 가사 주해』, 『서강인문논총』 5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129~162면.
정기선, 『자료적 특성으로 본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주제구현 방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202면.
_____, 『가사 <고령가곡녀자들등님곡이라>의 성격과 문화적 의미』, 『한국학논집』 9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3, 171~199면.
최지녀, 『<인간독>(諺簡牘)과 한글편지를 통해 본 근대의 풍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9, 223~242면.

The Structure and Significance of Kyubang Gasas and Eongandoks Included in *Yeojaga*

Jung, Kisun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kyubang gasa (women's didactic verse) and eongandok (vernacular letter manuals), as well as their relationship, as featured in *Yeojaga*, a manuscript presumed to have been compiled in 1906 and currently housed in the Yulgok Memorial Library at Dankook University. Until now, *Yeojaga* has primarily been discussed in the context of variant studies of *Bokseonbuwaemga*, with little scholarly attention given to the contents of the letters included in the manuscript or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tters and the didactic verse. In respons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bibliographical features and composition of *Yeojaga* and analyzes two kyubang gasa pieces—*Yeojaga* and *Balmongga*—alongside thirteen vernacular letters in order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their co-presence in a single volume.

Yeojaga appears to have been compiled by multiple hands, rather than as a unified manuscript. Despite differences in form, both the verse and the letters share a common function as practical modes of women's writing. The kyubang gasa operate as didactic songs rooted in Confucian ideals, while the letters functioned as tools for daily communication and as templates for writing practice. The sequence of the letters, variations in handwrit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folio numbers, and the inclusion of incomplete letters all suggest deliberate editorial choices made by the compiler(s). Although this article remains a preliminary exploration, it provides a meaningful starting point for new perspectives on texts that combine kyubang gasa and eongandok in a single manuscript.

Keywords: kyubang gasa, eongandok, epistle, *Gyenyeoga*, *Bokseonbuwaemga*, *Yeojaga*,
Balmongga

접수일자: 2025. 3. 30.

심사기간: 2025. 4. 1.~2025. 5. 10.

계재결정: 2025. 5. 10.

